

‘남도한바퀴’ 이용객 ‘쑥’… 겨울상품도 히트 예감

올해 들어 2만5471명 이용
전년대비 49% 증가 ‘인기’
30여개 코스 운영 큰 호응
겨울 히트상품 28개 출시

전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올해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최근 출시한 겨울 관광상품도 인기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남도한바퀴 이용객은 11월 말 현재 기준 1029회·2만 54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4회·1만7115명)보다 49% 늘어났다.

이용객 증가는 일반코스 기준 9900원



전남도가 금호고속과 함께 운영하는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버스.

전남도 제공

부터 2만4900원까지 다양하고 저렴한 30여개의 알찬 코스를 기획한 결과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함께 탑승한 문화관광해설사의 귀에 쑥

쑥 들어오는 설명은 관광지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키면서 이용객 사이에서 입소문 이 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전남에서 열린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메가 이벤트와 연계한 특별코스를 운행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전남도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22개 시·군을 순환하는 시티투어 ‘남도한바퀴’ 겨울 히트 상품 28개 코스 상품을 출시했다.

겨울상품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과 함께 따뜻한 남도를 즐기도록 순천 세계수석박물관, 보성 판소리성지, 함평 엑스포공원 등 실내 위주 코스로 구성했다.

연말연시 일출일몰을 감상할 목포구 등대, 겨울 포구와 낭만을 만끽할 광양 배알도 섬 정원·덕포구 코스를 비롯해 고

흥 동강5일장, 함평 천지 전통시장 등 계절 진미를 느낄 지역 5일장 코스도 포함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여행지를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며 “남도한바퀴가 전남 대표 관광지 탐방 상품으로 더 사랑받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 코스 운영과 상품 예약은 남도한바퀴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예약 문의는 콜센터(062-360-8502)로 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

광주시,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눈앞’

중기부, 규제특례 임시허가
우치공원 실증 2년 연장도

우치공원 무인 노면정소차 실증운영이 2년 연장되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치공원 무인 노면정소차 실증운영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하면서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평동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등 7개 지역 16.79km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이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5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총 721시간 동안 1562km를 무사고 실증운행을 했다.

반면, 우치공원의 경우 공원녹지법에서 30kg 이상의 동력장치가 공원 차도 외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실증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 규제는 안전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개정되지 않았지만, 최근중소벤처기업부

가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로 임시허가로 전환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또 지난 2021년 3월 자율주행 운행에 따른 운전자 개념을 정의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2022년 4월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반영돼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만을 영상정보처리기로 다뤘으나, 올해 3월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개념을 확대해 자율주행 때 발생하는 가명정보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처럼 전국 유일의 무인특장차 도로실증이 가능했던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광주시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광주시는 우치공원에서 무인 노면정소차를 실증운영하는 ㈜에이엠특장이 공원 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입증 등 요청사항에 적극 대응해 2년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무인 노면정소차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김영록 지사, 사우디 알코라예프 그룹 방문

중동 아시아를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라예프(Alkhorayef) 그룹의 한 사업부인 ‘워터 앤 파워 테크놀로지스’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알코라예프 그룹과 협력사업을 모색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허브이자 스마트팜을 비롯한 첨단 농산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역을 보유한 전남기업의 사우디 첨단도시 건설 참여, 흥해 주변지역 스마트 도시 등의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다.

전남도 제공

호남권 최대 규모 ‘광주역 창업밸리’ 본격화

코레일 부지 매입 완료
공공투자 4400억 투입
2027년까지 단계 구축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가 시동을 건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4월 국토부 부지 매입에 이어 최근(11월24일) 광주역 후면 유희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의 부지 전체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는 등 사업 여건 변화로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사업대안 마련과 지역 정치권의 협조 등에 힘입어 국토부, 코레일 등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매각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감정평가, 용도폐지, 총괄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4월 국토부 소유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번 코레일 부지는 1년 간의 실무협의 끝에 매입을 완료했다.

광주역은 강기정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호남권 최대 창업 벨트가 조성되는 중요 요충지다. 민선 8기 들어서 그 가치가

계속 올랐고, 광주시에서도 전폭적인 힘을 집중시키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강기정 시장은 지난 5월31일 광주역에서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 광주 시민보고회’를 열고, 창업 성공도시로 가는 로드맵을 대대적으로 제시한바 있다.

당시 강 시장은 보고회에서 “전 세계가 신성장동력으로 스타트업을 주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은 광주의 미래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라는 필요조건과 엔젤투자자·창업기업·벤처캐피탈 등이 ‘광주에 올 수밖에 없는’ 충분조건이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인프라-인재로 연결되는 창업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인프라의 핵심은 광주역 창업밸리를 완성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창업성장의 거점인 광주역창업밸리에 더해서 이미 구축돼 있는 AI창업캠프 1·2호, I-PLEX,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등과 인공지능(AI)집적단지 창업실증동이 연결되면 도시 곳곳에 창업인프라가 깔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은 공공투자 비용 약 4400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어울림팩토리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매입한 부지에는 창업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와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창업자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4개 시설이 들어선다.

이 중 복합허브센터는 설계가 완료돼 이르면 올해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은 2024년까지 설계와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20년부터 광주역 전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공사하고 있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2023년 말 예정 공정을 이 약 70%로, 2024년 상반기 준공 후 하반기부터 초기 창업자들을 맞을 예정이다. 빛고을창업스테이션맞은편에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축한 어울림팩토리에는 현재 창업기업 6개소가 입주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해수 방사능 24시간 감시시스템 운영

완도 여서도에 전국 첫 설치

전남도가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을 우리나라 영해거점인 완도 여서도에 시범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해수 방사능 오염 안전성 감증을 위해 도입했다.

감시시스템은 무인으로 24시간 자동 운영되며, 감마핵종(세슘·요오드)과 베타핵종(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 검사한다.

검사 결과는 현장 설치 모니터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전남도와 완도군에도 전송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나선다.

현재 전남지역에선 연안 48곳·원근해 11곳 등 59곳에서 해양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용 해수를 얻기 위한 정점 이동과 해수 채취, 방사능 검사, 결과 발표까지 최소 1회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 설치로 효율적 검사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상 여건이나 해양 환경에 영향 없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완도 여서도에 설치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연속감시장비는 정부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 (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시험인증을 받는데 이어 대한민국 해군 등에도 납품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최초로 설치한 ‘해양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은 전남 해역과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수산물 검사를 전 품종, 1200건 이상으로 확대했다. 유통 전 산지 위판장 19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안심 관리 마을제도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최형지 기자